

[아트센터 나비] 성기현 교수의 들뢰즈 철학+미학 입문 강의

강사 인터뷰



성기현 교수 (한림대학교 철학 및 글로벌융합인문학 전공 교수)

**1. 들뢰즈 철학은 과학, 예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 그의 철학에서 예술론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들뢰즈는 특히 예술에 큰 중요성을 부여한 철학자입니다. 그가 쓴 저서들의 1/3 이상이 예술이나 문화와 관련된 제목을 갖고 있을 정도니까요.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예술은 철학이 나아가야 할 사유의 방향(차이, 생성, 소수성 등)을 제시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술은 감각을 자기 안에 보존하고 감상자를 통해 부활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능력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철학적 탐구의 대상이 됩니다.

**2. 많은 철학자들이 자신의 이론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예술(작품)을 사례로 활용하는 반면 들뢰즈는 예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철학적 개념을 창조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유의 방식은 어떠한 점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들뢰즈는 자신이 마주했던 작가들과 작품들이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말합니다. 그가 예술과 관련해서 만든 개념들은 이런 변화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뢰즈는 때로는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기존의 개념을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특정한 예술적 사태에 접근합니다. 자신의 철학에 예술적 사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사태에 맞추어 자신의 철학을 변형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들뢰즈 철학의 유연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흔히 기존의 지식이나 개념을 고수하고자 하는 우리의 둔감한 사유 습관을 재고할 수 있게 해줍니다.

**3. <감각의 논리>**는 들뢰즈의 예술론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저서인데요, 여러 예술가 중에서도 왜 프란시스 베이컨을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들뢰즈는 자기 사상의 후반기, 이른바 ‘미학적 시기’에 영화와 회화 등 이미지를 다루는 예술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베이컨과 관련해서 들뢰즈가 주목했던 것은 형태와 힘의 대립입니다. 형태를 그리기 vs. 힘을 그리기. 들뢰즈에 따르면, 회화에서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힘입니다. 그가 보기에, 형태란 힘에 의한 변형을 일시적으로 혹은 인위적으로 정지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베이컨이 힘을, 힘에 의한 형태의 변형을 그리는 데 성공한 화가였다고 생각합니다.

**4.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예술, 과학, 철학이 창조해내는 것은 각각 무엇이며, 서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게 될까요?

들뢰즈에 따르면 우리는 사유할 때 철학, 예술, 과학의 세 형식을 취하는데, 그것들이 겨냥하는 공통의 사유 대상은 카오스입니다. 여기서 카오스는 아무런 규정도 없는 무질서의 상태가 아니라, 수많은 질서들이 생겨나고 또 사라지는 무한한 가변성을 뜻합니다. 철학, 예술, 과학은 이 카오스로부터 우리를 구제할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질서들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개념으로, 예술은 감각으로, 과학은 함수로 그런 질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것들은 서로 이질적이기도 합니다. 이질적인 것들 간의 만남, 그 만남이 가하는 충격, 들뢰즈는 거기서 새로운 개념, 새로운 감각, 새로운 함수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5. 들뢰즈의 철학적 개념이나 책의 내용 중에서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위대한 소설가는 무엇보다도 알려지지 않았거나 잘못 알려진 정서를 고안하고, 그 정서를 자기 인물의 되기로 발전시키는 예술가다.” 저는 이 문장을 철학자에게 적용해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위대한 철학자는 우리가 느꼈지만 전달할 수는 없었던 사태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고, 생각은 했지만 설명할 수는 없었던 사태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철학적 개념의 유효성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들뢰즈의 철학이 여러분에게 그런 개념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